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노동조합 소식지
울타리

2018년
5월 31일(목)

3,1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 "울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도대체 어떤 상품을 믿고 팔아야 하는가?

우리 직원들은 회사의 그 어떤 상품 프로모션도 묵묵히 행하여 왔다.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정해진 KPI를 수시로 바꾸며 **상품세일즈를 강요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미래에셋맵스 프런티어 브라질 부동산펀드,
달라스 부동산, 호주 부동산, 애틀란타 부동산펀드에
KTB전단채펀드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상품을 세일즈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자료를 만들어 직원을 압박하더니 사후관리는 왜 이런가?

판매한 직원들만 고통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 회사가 말하는 고객 동맹인가?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달라스 부동산펀드, 호주 부동산펀드, 애틀란타 부동산펀드가
브라질 부동산펀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투자실패는 투자자와 세일즈한 직원들만의 책임인가?

이런 식의 상품 판매와 사후관리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향후 대응방안을 WM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